

신자유·글로벌 자본주의도 궤도수정 불가피

소득격차·지구환경파괴 등을 고려하는 경제성장 필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의 반세기를 한마디로 '경제성장의 시대'라고 부른다면, 21세기는 바로 '지구 환경의 시대'로 부르고 싶다. 그 지구환경시대의 특징은 무엇인가?

첫째로 지구온난화, 오존층의 파괴, 황사와 산성비, 사막화 등으로 나타나고 있듯이 인류의 기초적인 생존조건인 지구환경이 광범위하게 파괴되고 있어서 그러한 환경 파괴에 즉각 행동을 하지 않으면, '우선 지구' 그 자체의 존속이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둘째, 지구환경의 파괴는 공업화에 의한 경제성장시대의 태내에서 필연적으로 생겨난 것이다.

따라서 지구환경의 보전을 위해서는 경제성장시대를 주도해 온 성장지상주의를 대신하는 새로운 경제사회운영의 기본전략이 불가결하다. 그것이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지구환경정상회의가 채택한 키워드인 '지속(지탱)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전략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현재의 지구환경을 현재보다 악화시키지 않고 실천할 수 있는 발전'을 의미하며, 그 필요조건으로서 다음 네 가지를 들고자 한다.

(1) 자연환경이 본래 갖고 있는 스스로의 재생·정화·치리능력을 유지하는 것.

(2) 자정능력이 유지 가능한 범위내로 생산·소비량을 억제하는 것.

(3) 자원은 보전과 절약 곧 재생산 기술자원(어류, 삼림 등의 동식물자원)은 재생능력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하고, 고갈성자원(석유, 철광석 등

의 광물자원은 절약할 것, 또는 재생기술자원의 이용으로 전환하는 것.

(4) 자원의 재활용(recycle)과 재이용(reuse)을 촉진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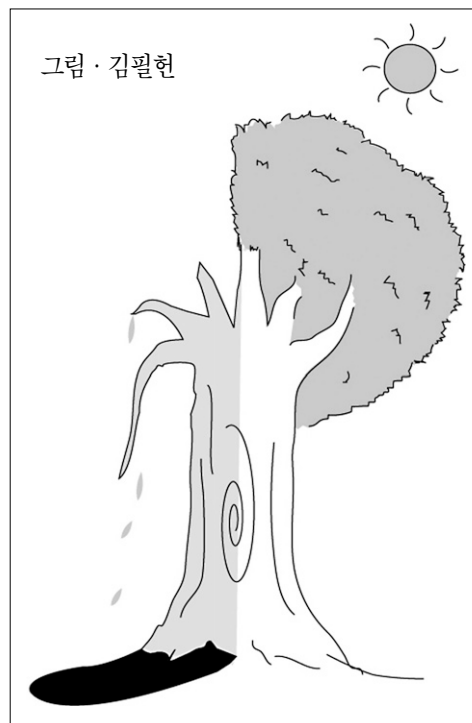
셋째로 지구환경시대란, 근대 공업문명의 대량생산, 대량소비, 과잉폐기라는 구조에 대신하는 새로운 원리를 찾아낼 수 없는 시대이다.

자연에너지를 낭비하고 거대한 산과 같이 쌓인 폐기물을 토해 내지 않고서는 안 되는 근대 공업문명의 구조가 필연적으로 지구환경을 파괴하기에 이른 것을 생각해 보면, 이미 근대공업문명은 파탄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밝은 빛의 미래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이래의 근대경제학에서는 자유로운 시장에서 경쟁을 하면 경제는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신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가장 적절한' 자원배분과 소득분배의 형평이 달성된다. 그러나 자유경쟁이 만들어 내는 불평등·격차나 지구환경의 파괴는 정치 행정이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근본교의다.

이 교의에 따라 신자유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시장에 규제를 완화하고 정부의 간섭을 가능한 한 줄여서 자유경쟁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위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것이 경제의 파이를 최대화하기 위한 최선의 방책이라고 주장해 왔다.

대부분의 자본주의 시장국가들은 물론 사회주의 중국까지도 시장경제 원리에 의한 과감한 '구조개



혁'을 전개해온 것도 그와 같은 논리에 따른 것이다. 이런 신자유주의 혹은 시장원리주의의 자유시장방입론이 세계경제를 활성화 시켜 경제에 역동성을 불어 넣는데 성공할 가능성은 결코 낮지 않다.

적어도 사회주의 실험이 실패한 지금, 신자유주의의 글로벌 시장경제가 아무리 세계경제를 혼란에 빠

뜨였다 해도 사회주의 체제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안이한 주장은 받아들여 질 리가 없다. 그러나 문제는 자유방임상태의 시장원리주의가 초래하는 부작용 즉, 경기변동의 불안정화, 소득격차의 확대, 지구환경의 파괴 등에 대해서 너무나 고려가 부족했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신자유주의주의자들은 경제가 활성화되고 국부(國富)의 파이가 커지면, 그 혜택이 세계 전체시장으로 파급되어 이득과 각 지역의 누구나 중요위진다고 주장한다.

격차 확대나 금융위기 같은 현상은 자본주의 시장의 순환과정에서 어찌 일어날 것이어서, 그것은 어디까지나 '과도적인 현상'일 뿐이며, 재정투자 등 케인즈식 정책수단을 동원한다면 민주주의와 시장의 자동조정능력에 의해 경제체계의 부작용이 시정되고, 지구촌 시민들이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봄이 다가오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중국의 최고지도자 덩샤오핑(鄧小平)의 선부론(先浮論)과 같다. 그는 1978년 이후 사회주의 중국대륙을 개혁·개방하면서 상하이(上海), 우한(武漢), 선전(深圳), 주하이(珠海) 등지를 경제특구로 지정하고 공업화를 적극적으로 전개했다.

'일부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을 먼저 발전시키고 나머지 지역은 그 뒤에 발전시킨다. 먼저 발전한 지역이 늦어진 지역을 이끌어 최후에는 모두가 풍요롭게 된다. 먼저 부유해진 지역이 많은 세금을 지불하여 빈곤지역의 발전을 돕는 것이다.' 덩샤오핑의 이 개혁 개방 노선은 이후 30년간 중

국경제발전을 가속화한 원동력이 되었지만, 주지하다시피 중국 경제성장의 한편에선 소득 불평등의 확대나 환경파괴와 공해문제라고 하는 커다란 사회적 제문제들을 초래하고 있다. 이대로 돌진한다면, 지구촌에서 에너지와 원자재를 거의 착취하 하면서 지역·계층 간, 소수 민족 간 소득 격차와 환경오염은 중국 경제의 가장 큰 위협요인이 될 것이다.

발달한 동부 연안 옆으로는 1인당 소득이 1000달러도 못 미치는 빈곤지역이 태반인 중서부지역이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시장이 붕괴되거나 정치 체제적 혼란과 인민의 폭동이 일어나거나 해서 중국사회에 커다란 혼란을 일으킬 것이 틀림없다.

자유방임의 시장원리주의나 신자유주의 혹은 글로벌자본주의도 사회주의 중국과 같은 결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미국발 금융시장 파탄이 먼저 닥쳤고 이제 그 수습의 방법을 두고 G20 정상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저평가된 인민 위안(元)화는 미국의 무역적자를 키우고 있고, 향후 중국경제의 성장주의 노선을 지구촌에서 에너지와 원자재를 대량 구매함으로써 향후 원유가격의 재상승, 공해의 확산마저 우려되고 있다.

결국 중국의 고도성장은 온갖 장밋빛 전망을 낳고 있지만, 미국식 신자유주의나 글로벌 자본주의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어쩔수 없이 궤도수정의 운명을 맞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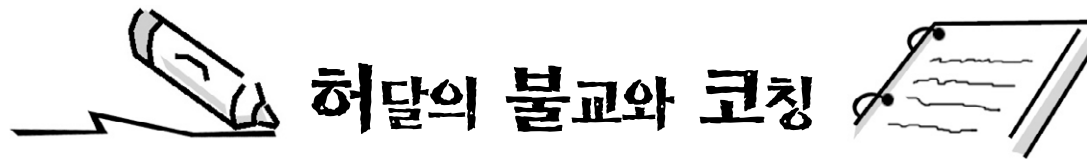
■ 인문대 경제학과 교수

18 프로정신

추석 연휴가 끝난 10월 5일 아침 신문에는 16강의 관문을 당당히 실력으로 통과한 이집트 U-20 청소년 월드컵의 '홍명보 리더십' 기사가 실렸다. 어린 선수들과 스타 플레이어 출신 감독에 대한 축구계의 우려를 '신뢰와 존중의 리더십'으로 말끔히 씻어내고 팀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칭찬 기사였다. 특히 홍명보 감독의 말을 인용, "지금부터의 매 경기 선수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이라며 "이들의 감독이 될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기술한 대목의 진정성이 기사를 읽는 독자들의 심금을 울렸을 것이다.

열흘쯤 지난 일이지만, 조선훈보 9월 24일자에는 TV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에서 마에스트로 강역을 맡아 열연했던 텔트 김명민 이야기의 큰 줄기 실렸다. 그가 새로 맡은 드라마 '내 사랑 내 고향'의 루게릭 환자 역을 연기하기 위해 식사 조절만으로 체중 20kg을 감량했다는 '지독한 프로정신'에 대한 기사였다. 어쨌든 운동과 식사 조절을 함께 하며 체중 감량을 시도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에 그 핵심이 잘 나타나 있었다. 루게릭 환자에게는 있어야 할 근육이 생겨서 안 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는 것이다.

만난 것은 늦었으나, 내가 한문과 서예를 배우던 연하의 스승



이자 지기(知己)이며, 또한 술 벗으로 현천(玄川)이라는 서예가이자 한학자, 시조시인이었다. 어느 날 뜻하지 않게 뇌일혈로 쓰러지더니, 뇌수술을 받고서야 깨어나 목숨은 건졌으나 오른쪽 거동이 불편한 몸이 되었다. 그 여격을 이기고 불굴의 의지로 일어나 왼손 서예를 시작하더니 마침내 회갑전을 열었다. 거기 왼손 글씨로 써 걸었던 뜻 깊은 자작시를 우리 말로 번역해 소개하면, 이러하다.

"백발의 인생은 늙어가지만/ 항심(恒心)은 변치 않는 뜻이 있다/ 시서(詩書)는 평소 좋아하였고/ 약주(藥酒)는 한 잔으로 가볍게 든다/ 또 산장에 봄날이 좋아/ 주인이 누구인지 묻지 않는다/ 땅 가득 수풀 꽃이 떨어지는데/ 금년에는 스스로 얻은 시 한 편."

현천이 병 후에 끈기와 인내로 각고(刻苦)하여 터득한 내러놓

음(下心), 이것 역시 목숨을 건 불굴의 프로정신으로 가슴을 울린다.

우리나라 축구가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룬 뒤 '허딩크 리더십'을 삼성경제연구소가 연구해 발표한 적이 있었다. 세계적인 코치의 남다른 프로정신을 원칙과 전략 양 측면에서 접근하여 하이 퍼포먼스(HI-FIVE)라고 재미있게 영어표현의 머리글자를 따서, 요약한 적이 있다.

원칙(HI): 끈기함과 소신(Hardiness), 공정성 (Impartiality)
전략(FIVE): 기본 강조(Fundamentals), 혁신추구(Innovation), 가치공유(Value Sharing), 전문기술 활용(Expertise)

"하루에 세 번 자신을 돌아 보자"

특히, 허딩크 감독은 우리나라 축구의 패러다임을 바꿔 선수들이 두뇌를 활용, 생각하는 축구가 가능토록 지도함으로써 그 수준을 여러 단계 업그레이드 했으며, 칭찬과 인정을 통해 선수들 내부에 잠재된 감성을 찾아내 이를 최대한 신장시켰다. 그 뿐 아니라 팀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 팀워크를 이루게 한 것은 허딩크 감독이 코칭 리더십의 진수를 드러낸 것이어서 과연 명백해졌던 것이다.

연재 컬럼의 글을 읽은 어느 동료 코치 한 분이 고마운 피드백을 해 주었다.

"허 코치의 글 내용은 좋기는 좋은데, 너무 코치의 수동적 역할만을 조명하는 데 치우쳐 있는 것 아닌가요? 코치가 고객에 미치는 능동적 영향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듣고 보니 옳은 말이어서, '프로정신'을 빌어 그 답에 대신하려고 코치의 마음가짐 몇 가지 예를 위에 들어보았다.

잘 알려진 증거(證)의 글 "하루에 자신을 세 번 돌아 본다(吾日三省吾身)"를 코치의 좌우명으로 인용해 보자.

마지막 구절 '전불습호(傳不習乎)'는 '익히지 않은 것을 전하지는 않았는가?' 하는 점을 뒤돌아 반성한다는 것이니, 이것 역시 요즘 표현으로라면 철저한 프로정신을 나타낸 것이 아닐는지. ■ 한국코칭센터 고문

2009년 불교교육능력평가를 위한

제8회 연합회 포교사고시 실시 공고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에서는 불교양대학을 졸업한 불자들을 대상으로 불자로서의 기본 소양, 불교교리의 이해, 사회봉사 참여의식, 불자로서의 가치관등에 대하여 불교교육능력 평가고시를 시행하여 실천불교를 위한 정법포교의 선구자역할을 할 불교포교사를 배출하고자 제8회 연합회 포교사 고시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공고함

포교사고시 응시대상

· 연합회에 등록된 교양대학(교육과정 1년 이상)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시험일시

· 2009년 12월 6일(일) 오후 1시~오후 6시 (필기시험 및 면접)

응시원서 접수기간

· 2009년 10월 19일(월) ~ 11월 14일(토)

응시장소

· 박문각행정고시학원 (서울 중로구 조계사입구, 제일은행 본점 뒷편)

포교사 고시 구비서류

· 응시원서(소정양식) · 졸업(예정)증명서
· 자기소개서(소정양식) · 성적증명서
· 수첩첩 사본 · 사진 4매(반명함판)

응시료

· 응시료 60,000원 (국민은행 023501-04-144340 예금주: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접수방법

· 학교별 일괄접수

접수유형

· 서류전형 → 필기시험 및 면접 → 최종합격자 발표
→ 최종합격자연수 및 품수

합격자발표

· 2010년 1월 9일(개별 및 학교별 통지)

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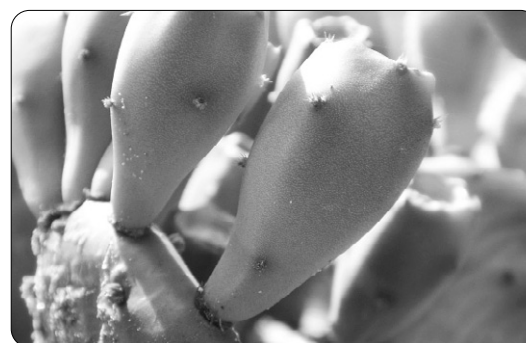
· 연합회 사무국 TEL 02)734-9595

*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에 신규가입할 교육단체 및 교양 대학은 사무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한국 불교 교육 단체 연합회

서울 중로구 수송동 46-20 TEL 02)734-9595 FAX 02)732-1207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 천/년/초를 아십니까?



천년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노지에서 자연상태 그대로 자라는 다년초 식물로 혹한의 영하 20°C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토종 선인장입니다.

특히, 어떠한 병충해에도 죽지 않고 농약, 제초제,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자연식품이며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식물"이라 불릴만큼 어떤 식물과도 비교할수 없는 높은 성분을 함유한 소중한 우리의 자원입니다.

직접 몸으로 느껴 보십시오.

한겨울 영하 20°C의 혹한 속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의 천년초! 천년초의 놀라운 생명에너지를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천년사랑에 사용하는 천년초는 유기농 천년초 100%를 사용해 만듭니다.



무료샘플신청 02)780-3989

(천년초 책자와 농축액 2일분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